



1.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전경  
 2.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진행된 포럼 모습  
 3. 한국인쇄관 부스  
 4.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전경

# 2010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성료

## 113개국 6930개사 참가... 인협 한국인쇄문화관 조성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 전시회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최됐다. 62회째를 맞는 올해 도서전에는 전 세계 113개국 6930개 출판업체가 참가했으며, 신간 10만2867종을 포함해 총 30만9885종의 도서가 전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75개 업체가 참가해 860여 종의 도서를 전시했다. 이번 도서전은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참여 업체 수는 다소 줄었으나 디지털 출판에 대한 폭 넓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

### 올해 최대 화두 '디지털'

전자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출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올해 최대 화두는 역시 '디지털'이 이었다. 이를 위해 도서전 주최 측은 올해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스파크(Frankfurt

Sparks)'를 선보였다. 우선 전시장 곳곳에 '핫 스팟(Hot Spots)'을 설치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자책 소프트웨어 등 출판사들을 위한 신기술 솔루션을 전시했다. 전시장 1층 포럼관에는 '스토리 드라이브(Story Drive)'라는 이름으로 출판사와 미디어 관계자들을 위한 마켓 플레이스를 마련해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세계 디지털 저작권 심포지엄, 디지털 세계에서 문학 등 디지털 출판 시장의 동향과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도 전시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주빈국인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문화는 움직인다(Argentina, Culture in Motion)'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아르헨티나 작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의 최근 출판 동향' 등을 다루는 토론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 세계경제위기 여파 지난해 이어 스릴러·성찰물 강세

시장 곳곳에서 진행된 세미나와 프레젠테이션은 디지털에 관한 주제가 점령했다. 디지털 담론과 장비가 도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 분야가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기존 출판계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심지어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미디어 전문가는 도서전 개막과 함께 열린 전문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혁명이 계속되면서 출판산업은 인력을 현재에 비해 40%로 줄여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주최 측은 출판산업과 미디어산업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스파크(SPARK)'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다. 문학·출판서비스·정보관리·교육·모바일·디바이스 등 6개 주제로 나누어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지는 '핫 스팟', 출판사와 영화·게임 등 미디어 관계자들의 만남을 위한 '스토리 드라이브'가 그것이다. 위르겐 부스 2010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의 바다가 지닌 잠재력은 한계가 없다"면서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운반의 도구에 불과하며 콘텐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 미래 책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디지털 출판'

분야별로 열린 세미나에서 핫이슈는 역시 미래 책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디지털 출판'이었다. 기존 활자 위주의 전자책에서 벗어나 영상과 음성, 게임 기능이 결합된 3D북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e북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며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e북의 보급이 빨라져 조만간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e북 시장 규모는 올해 353억 달러에 이어 내년엔 492억 달러, 2012년엔 667억 달러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예측됐다.

### 디지털 기술 앞세운 220m<sup>2</sup> 규모의 한국관 마련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한국관은 특히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1961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올해 220m<sup>2</sup> 규

모의 한국관을 마련했는데 문학동네, 웅진씽크빅, 예림당 등 16개 출판사는 직접 책을 전시하고 저작권 상담을 벌였다. 현암사, 서울문화사, 다산북스 등 34개사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도서를 위탁 전시했으며 비틀맵, 그레이트북스 등 25개사는 별도 마련한 부스에서 외국 에이전시들과 출판 상담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도 'Look at Korea' 행사를 열어 한국의 책 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도서전에서 주목받은 인물은 199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독일의 지성으로 꼽히는 귄터 그라스(83)였다. 전후 독일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 '양철북'의 저자인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별도로 마련한 '저자와의 대화'에 나서 세계 지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1959년 발표된 '양철북'은 나치즘의 등장부터 패망까지 독일 현대사와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소설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이다.

### 한국인쇄관 조성, 수출상담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한국인쇄관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32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된 한국인쇄관은 미래엔컬처그룹, 청아문화사 등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을 소개하는 직지 영인본, 직지 홍보 리플렛, 한국의 인쇄문화 홍보물 및 한국의 고급책자, 성경, 사전 등의 우수인쇄물이 전시되어 관심을 받았다.

한국인쇄관은 이번 전시회에 기간 동안 네임 보드를 Printing Korea로 하여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인쇄관임을 쉽게 알도록 했으며 한국관 내부에서는 직지 체험 및 인쇄문화를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개별업체관에서는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고급인쇄물 등 우리나라가 외국 인쇄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인쇄물을 전시하여 우회적으로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대한인쇄문화협회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한국인쇄관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